

豐山金氏殷栗派譜序

우리 豐山金氏의 始祖는 豐山伯文迪公이오, 文迪始祖는 新羅金氏의 本源인 金闕智大輔公으로부터 四十一世가 되며 殷栗派始祖乙富公은 文迪祖의 六世孫인 允寶公이 바로 그분이다.

朝鮮太祖七年(一三九八)代에 이른바王子亂 때 允寶公의 從孫인 子良公이 兵曹判書로 在職中 三峰鄭道傳、南閻等과 함께 世子(芳碩)을 扶護한 關係로 靖安君(芳遠)一派에게 除去당하게 되자 允寶公自身이 乙富라 變名하고 아들 三兄弟도 各各 安一、安實、安殷으로 變名、避禍落鄉流離하던中 安寶公이 黃海道殷栗郡後山으로 入居定着한 곳이 바로 우리의 故鄉인 白土介라 불리우는 곳이며, 이곳에 그 孫子인 碩山公(將仕郎)과 善南(中直大夫)、舜雨(中直大夫)、起文(通政大夫)等 上代先祖들의 墓所는 모두 黃海道殷栗郡南部面清石里白土介、同面桂林里史器洞、同面長岩里軍糧洞에 있다. 그後 집안이 郡內 各面은 勿論 松禾、長淵、信川、安岳、平安南道鎭南浦等地에 흩어살아 그 戶數가 數百에 達하였다. 그리고 代代로 儒學을 崇尚함은 勿論 開化期에는 新文化에 뜻을 두는 이들도 있어 學者의 家門、開化의 집안으로 認定되기도 하였다. 宗中에는 譜書、家乘等 文獻이 傳來하고 歷

代의 著書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戰禍로 一九五〇年末에서 一九五一年初까지 겨우 生命만을 保存하면서 越南避難하느라 집안文書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욱이 以南의 宗中과는 距里 關係로 連絡通譜가 없었던 터라 희미한 記憶을 더듬고 以南居住宗親들을 통하여 系譜를 캐보는길 밖에 없는 일이어서 一九七〇年以來 豐山金氏大宗親會와도 連絡을 取하였고、安東、忠州、金浦、榮州(梧麗)寧越等地를 探訪 古文書를 參考하는 한便 國立圖書館等其他 여러곳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느라고 애썼다.

이 일에는 우리 門中の 자량인 史學 및 漢學에서 國寶的인 存在 龍國氏가 있어 古書 漢文을 翻譯 參考하는 일과 遠近을 莫論하고 余와 同行하면서 우리 史料蒐集에 크게 寄與한 功을 잊을 수가 없다.

이제 故鄉을 떠나온지 四十年、돌아갈 길은 漠然한 오늘 떠나올때 紅顔少年이던 사람이 白髮老人이 되었고, 가을落葉처럼 하나 둘 他界하는 사람이 늘어만 가는 이時點에서 이대로 가면 희미한 記憶이나마 가진 사람도 없어지고 보면 우리家門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졌음을 後世가 알 길이 없겠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以南에서 찾을 수 있는 史料를 收合하고 于先 赫字行列(余의曾祖)以下의 名單을 收合、이 草譜를 刊行키로 하였고 後日 正譜가 作成될 때 資料로 삼는다는 뜻에서 삼가 적는다.

宗中에는 譜書、家乘等 文獻이 傳來하고 歷

參考한 資料의 一部로 다음과 같은 內容을
寫眞과 寫本으로 添付하여 둔다.

- 一、新羅金氏世系
- 二、大輔公史實
- 三、敬順王史實
- 四、遺墟碑銘 및 序
- 五、皇南殿碑銘 및 序
- 六、影幀記
- 七、豐山金氏世譜序（壬寅譜、癸丑、庚子譜）
- 八、安東郡（府）誌 豐山金氏豐山伯文迪後裔編
一部分
- 九、奇聞錄遺事記錄
- 一〇、黃海道殷栗郡南部面地圖
（우리祖上山所들의 位置表示）

一九八四年 三月 日

豐山伯第二十四世孫 相舜 적음

豐山金氏世譜 序文

譜書라는 것은 先祖를 追慕하고 宗族을 叙述하여, 孝道 友愛하는 도리를 길이 보여주는 것이다. 蘇老泉(宋나라 선비 蘇洵)의 (그族譜) 序文에, 「孝道 友愛하는 마음이 油然而生된다.」고 한 것이 참으로 옳은 말이다. 대개 父祖以上으로 거슬러올라가 五世에 이르르면 服이 다하고, 兄弟以下로 떨어져서 三從(八寸)에 이르면 服이 또한 다하는데 服이 다하면 親함이 없어진 다. 服이 다하고 親함이 또 없어진다면 소홀히 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者 몇사람이나 될 것이라?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宗親을 두터히 하고 집안을 법도있게 하여 더욱 譜書를 修撰하는데에 마음을 쓴 것이다.

우리 金氏는 世系가 安東의 豐山縣(지금 安東郡 豐山邑)에서 시작되었으며 始祖께서 高麗朝에 벼슬하여 判相事가 되셨다. 지금에 이르러까지 八、九百年에 크게 번성하고 빛나지는 못하였지만 道義와 文學으로 집안을 이어오며 名卿高士의 큰 科擧, 좋은 職卿이 줄을 이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家譜를 아직껏 刊行하지 못하였으니 대개 宗族이 작고 가난하며 벼슬 또한 크게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先父兄의 깊이 한스럽게 여기는 일ियो 後世子孫의 책임인 것이다.

우리 宗兄 瑞必氏와 族姪 繼源甫가 慨然히 여기에 뜻을 두고, 앞장서서 宗人들과 함께 各派에 通告하여 名單을 거두어 정리하고, 재물을 모아 일을 진행하였다. 모든 校正, 감독하는 일을 여러 子弟들과 勞苦를 함께하여, 몇 달 만에 이루게 되니 그 序次와 凡例가 자세하고도 갖추었으며, 엄중하고도 공정하여 깊이 譜書의 체제에 맞고 疎漏 虛僞의 잘못이 없다. 또 우리가 姓을 가지고 오면서 무릇 몇 代를 두고 미처 손대지 못한 것을 하루 아침에 이루어서 집안의 믿을 수 있는 歷史로 삼으니, 一門의 다행이요, 온 宗族의 경사가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생각하면 내가 외롭게 京中에 寓居하면서 여러 宗人들로 더불어 일을 함께 하지 못하고, 외람되게 宗兄의 명을 받들어 대략 두어 줄을 적어 책 머리에 엮는 글을 삼게 되니 위에서 말한 바 호도 우애하는 마음이 油然而生한다. 壬寅年(正祖六年, 서기 一七八二)三月일에 후손 通訓大夫 進 世孫侍講院司書 叙九가 손을 썼고 삼가 씀

癸丑年(哲宗四年, 一八五三)續刊 때 序文

金氏 族譜는 豐山의 宗族을 적은 것이다. 印刷하여 전해오는 것이 崇禎(明나라 毅宗의 年號)후 세번째 壬寅年(正祖六, 一七八二)에

서 비롯하였는데 모두 세 권이었다. 지금 七〇
여년을 지났고, 자손들로서 譜書에 오르지 못한
자 또 六、七代에 이른다. 먼저의 일은 차츰
없어지고, 후대의 親屬은 疎遠해져서 湖嶺間에 흠
어져 사는 자가 막연히, 世代가 얼마 되는지, 分
派가 어데서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의 몸으로 하여 끝내는 길가는 사람과 같
이 되는 한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 두려
운 일이 아닌가?

작년 九월, 嶺南의 여러 종친들이 悠然堂에 모
여서(譜書) 重刊하는 일을 의논하고 畿湖等地
各處에 통문 보내어 알리며 出刊所의 여러 소
임을 정하고, 재물을 모으며 工匠을 모집하여 일
제히, 정리하였는데 舊本은 전의 板刻을 그대로
쓰고, 新本은 活字로 뒤에 붙여 이루니 모두 六
卷이 되었다. 지금부터야 豐山의 譜書가 完帙
을 이루게 되어, 전의 功業을 빛내고 후에 오
는 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無窮하게 되었다. 아
아, 詩經에 말하기를, 「本孫과 支孫이 百世는 간
다」라 하고 그에 앞서, 「그 命이 새롭다」하
였으며 書經에는, 「그 德을 새롭게 한다」하고
계속하기를, 「始와 終을 오직 하나로 한다」고
하였다. 우리 金氏가 姓을 얻은지 이미 千餘
年인데,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였지만 忠孝를 대
대로 전하고, 베풀하는 이가 서로 잇따랐으며,
勝國(高麗)末에 와서는 左尹公(諱安鼎)이 크
게 家聲을 떨치고, 후손들을 昌盛하게 하였다.
聖朝(近世朝鮮)에 이르러서는 虛翁(虛白堂, 諱

楊震)·潛祖(潛庵, 諱義貞)의 淸德 文章과 遁
谷(諱壽賢)·悠然(諱大賢)의 重望 儒雅로 넓혀
새롭게 하고, 이어서 八蓮(八進士)·五桂(五文
科)의 성대함이 있어 이름난 仕宦이 國史에
실려있고, 學行과 節義가 京鄕에 빛났으며 지
금까지 科宦 儒業이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
으니 이것이 우리 祖先들의 積德 累仁의 공
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렇게 새롭고 또 새로
울 수 있으리오.

이제 우리 譜牒을 전의 것을 가지고 새롭게
게 하여 序次와 凡例를 자세하고도 바르게 하
니, 世代가 遙遠하지만 昭와 穆이 모두 옳게
되고, 分派가 많지만 宗과 支가 각각 붙일 곳
이 있어, 湖南·嶺南의 멀고 가까운 곳을 논
할 것 없이 一部 중에 連結 聚合하지 않음
이 없다. 무릇 우리 근원을 함께한 친척은
忠孝 두 글자를 집안에 전하는 心法으로 삼
아서 더욱 祖先을 높여 받들고, 宗族을 화목
하는 의리로 삼는다면, 이 譜書의 續刊은 실
로 우리 門中の 끝 없는 福이 되고, 舊德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舊本에는 이미 여러 叔·祖의 序記가 있어
다시 더 붙여 말할 것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
만 新刊의 顛末만을 들어서 대략 위와 같이
적어 둔다. 癸丑年 五月下旬에 후손 通政大
夫 敦寧府都正 曺 知製教 重夏가 손 모아 절
하고 삼가 적음.

庚子年(一九六〇)續刊 때 序文

우리 豐山 金氏는 判相事公을 始祖로 하여 姓을 얻은지 一천여년 이었으며 族譜의 시작은 正廟朝 壬寅年에 있고, 哲宗 癸丑年에 續刊되었다. 처음에는 鶴沙先生(諱應祖)의 편찬한 追遠錄으로 근거를 삼고 다시 遺漏 闕失한 것을 찾아 모아서 엮은 것으로 前後의 刊行이 각각 三卷이다.

무릇 우리 宗人들의 湖·嶺 등지에 흠어져 거주하는 자 크게 번성하지는 않지만 仕宦으로 세상에 빛나고, 淸德으로 代를 이으며, 文章으로 이름난 선비들이 서로 잇따라서 그 어느 名門 巨族의 반열에 비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 래서 譜書가 이루어져 세상에 행하여지게 되었는데 規模와 條理가 明白하고도 簡重하여 祖先을 높이고, 宗人을 공경하는 뜻과 친척을 敦睦하고 氏族을 講究하는 도리에 거의 유감이 없으니, 蘇老泉(洵)의 이른 바, 「효도하고 우애하는 마음이 油然而生된다」는 것이 이를 두 고 한 말이다.

그러나 癸丑年 이후로 지금까지 一백여년이라 譜係의 闕漏를 오래도록 修訂하지 못하였으니 時期가 늦어지고, 字行이 거의 다 되었다. 혹은 六、七世에 이르도록 譜牒에 오르지 못하고 流離 散失하며, 혹은 父祖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데 찾아 상고할 길이 없게 된 자도 많으니 매 우 慨歎스러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世態가 변

천하고 論理가 오래도록 폐지되니 譜書를 修撰하는 일이 바로 오늘날의 急務라 하겠다.

여기서 合謀 同議하고, 여러 차례 모여, 서로 어긋나는 의논을 一掃하고, 반드시 成就할 것을 기약하니, 遠近의 여러 族人들이 모두 團合 呼應하였다. 宗君 元在가 族從 秉建甫로 더불어 특별히 始終 앞선하여 各派의 修單을 收合하고 인쇄에 붙여 합하여 五卷으로 하니, 정편하고 비 용을 덜기 위해서 였다. 校正에 있어서는 梧麓의 時洛氏、金浦의 鳳欽氏、忠州의 道欽氏、美洞의 胄變등 여러 老成人들이 주로 그 일을 맡아 보아서 四년 만에 功을 이루었다. 아아, 先父兄의 여러 차례 마치지 못한 뜻을 이루고 온 宗族의 久遠 親睦할 文案을 作成하였으니 참으 로 一代의 盛事이다. 누가 기쁘고 감격하여 頌祝하지 않을 것이라?

아,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族文 履變氏가 그 일을 통솔하고, 族兄 秉喆氏가 譜係에 밝고 익 숙하여 매우 精力을 加하였는데, 일을 다 끝내 지 못하고 두분이 차례로 가시니 어찌 슬픈 일 이 아니리오. 工役을 끝내었으니, 顛末의 사실 을 적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宗人이 한 말 로써 기록하기를 청하다. 끝내 감히 부족하다 하여 固辭할 수 없으므로 대략 그 本末을 위 와 같이 叙述한다. 庚子年 三月 日에 후손 秉純이 손 모아 절하고 삼가 쓴다.

豐山金氏世譜序

譜者家史也所以追先祖叙宗族示孝弟之道於無窮也蘓老泉之序孝弟之心油然而生云者誠至言也蓋自父祖以上溯而至於五世則服窮自兄弟以下踈而過於三從則服亦窮服窮則親渴服窮而親又渴其不忽而忘之者能幾人也此古之君子敦宗而範家所以尤致意於修譜者也吾金氏系出安東之豐山縣始祖仕麗朝爲判相事至于今八九百年雖不甚繁行輝赫以道義文學世其家名卿誥士魁科華銜蟬聯相望而家譜尙未刊行蓋族小而貧仕宦亦未嘗達也實先父兄之所深恨而後世子孫之責也吾宗兄瑞必氏暨族姪繼源甫慨然有志於斯倡率宗人通告各派收單而釐正之鳩財而經紀之凡校讐監董之役與諸子弟共其勞苦若干月而告功其序次凡例旣詳而備克嚴且正深得譜家之體而無踈漏虛僞之失且吾得姓來凡幾世所未遑者一朝得成書爲家之信史一門之幸合族之慶尤當如何也顧余孤寄圻垌不獲與羣從同事猥承宗兄之命畧叙數行以爲弁卷之文

而所謂孝弟之心油然而生者重爲諸宗祝也歲在庚三月日後孫通訓大夫前行世孫侍講院司書叙九盟手謹書

癸丑續刊時

金氏族譜譜豐山之族也鉅梓傳後始於崇禎後三壬寅凡三冊今過七十餘年子姓之不入譜系者又至六七世先故寢泯後屬跡遠散處湖嶺者差不知世代之爲幾許派分之爲誰某由一人之身而終不免路人之歎可不懼哉昨年九月日嶺中諸宗會于悠然堂議重刊之舉通諭畿湖各處定出刊所諸任鳩財募工一齊整頓舊本則皆仍舊刻新本則以活字印足以成之總之爲六卷今而後豐山之譜得爲完帙而光前烈而詔後承者無窮旣也於乎詩言本支百世而光之而其命維新

書云惟新厥德而繼之以始終惟一我金得姓已千有餘年雖不甚繁衍忠孝世傳
絳組相望勝國末左尹公正振家聲克昌厥後逮至 聖朝當文明氣數之盛虛翁
潛祖之清德文章道谷悠然之重望儒雅廊而新之繼有八蓮五桂之盛清官膺仕
載在國采學行名節照耀鄉邦至于今科宦儒業連世不絕此非吾祖先積德累仁
之功其何以致既新又新之效如是哉今吾譜牒因舊而爲新序次凡例既詳且正
世邈而昭穆咸得其宜派分雖衆而宗支各有攸屬無論湖嶺遠近莫不牽連華合
於一部之中凡我同源之親以忠孝二字作傳家心法益篤尊祖睦族之義則譜之
續刊實爲吾門未艾之福而克新舊牒之一大機會也舊本既有諸叔祖序記無容
更贅只舉新刊顛末畧叙之如右云爾癸丑端陽月下澣後孫通政大夫敦寧府都
正肅知製 教重夏拜手謹識

庚子續刊時

我豐山之金以判相事公爲鼻祖得姓千有餘載矣族譜之作始創於 正廟之季

寅後七十餘年而續刊於 哲廟之癸丑其初則以鶴沙先生所編追遠錄爲據而
傍採其遺闕而蒐輯者也前後之刊各有三冊凡吾宗之散處湖嶺者不甚繁行然
簪纓赫世清德傳承文章名碩鬱然相望足可比數於世族之列而無媿此譜所以
作而行于世也規模條理明白簡重於尊祖敬宗之意敦親講族之道庶無遺憾焉
老泉所謂孝弟之心油然而生者此也然自癸丑以後至于今百有餘歲而譜係之
闕久未及修則時期嗟晚乎行幾盡或至六七世者不載譜牒流離散失或不知父
祖來歷而無憑可考者亦多甚慨歎願世級變換倫常久廢則修譜之舉正謂今日
之所急務也於是合謀同議期會累次一掃齟齬之論以必成是圖遠近諸族無不
洽應而宗君元在與族從秉建甫特翰始終收聚各派修單而付之印刷合得爲五
冊以其輕便而費省也校正則梧麓時洛氏金浦鳳欽氏忠州道欽氏美洞曹燾等
諸老成主監其事四載而功告就嗚呼遠先父兄累經未了之志成合族久遠親睦
之案誠一代之盛事也孰不欣感而頌祝哉噫是役也族文履慶氏首領其事而族

兄秉喆氏明習譜係甚加精力事未迄而二公次第千古豈不傷感也哉役旣成不
可無顛末之事諸宗人請以一言識之終不敢以不逮辭畧叙其本末如右云歲庚
子三月日右孫秉純拜手謹書

一世

始祖
金文迪

高麗熙宗元年
生（一二〇五）
高宗十四年
（一二二七）
文科及第判相
事 豐山伯

二世

子永玄

高宗十三年
（丙戌）生
（一二二六）
戶長
中允

三世

子有連

高宗三十二年
（乙巳）生
（一二四五）
神虎衛散員別
將

四世

子鍊成

元宗七年（丙寅）生
（一二六六）
進士
左右衛保勝郎
將
忠烈王十六年
（一二九〇）
文科及第
成事
配 豐山柳氏

五世

子盒

忠烈王三十三年
（丁亥）生
（一二八七）
進士
知肅川事
配 豐山柳氏
父文伯
忠宣王三十六
年庚戌
（一三一〇）
恩賜及第

六世

子允德

見二

子允寶

（乙富）

見二

子允堅

見三